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현대적 변용과 리더십 읽기*

조성숙**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가락국기」 ‘허황옥’의 여성상
- III. 『허황옥, 가야를 품다』에 나타난 ‘라뜨나’의 모성원리
- IV. 여성상 변용으로 읽는 리더십
- V. 나가며

【국문초록】

현전하는 「가락국기」의 여러 자료 중 『삼국유사』가 가장 풍부한 서사를 가지는 것은 허황옥 서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삼국유사』 「가락국기」 건국신화의 문학성을 논의했으며 역사적 실재성을 탐색했다. 이는 수로와 허황옥의 실존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동화에서부터 역사적 독서물, 만화, 소설로 등장한 이 건국신화는 수로 중심의 서사였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수로는 가락국을 세운 건국신화의 역사적 주인공이므로 그의 서사는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그의 인물상이 변화되었더라도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 반면에 신화의 허황옥 서사는 현대소설에서 여러 변화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허황옥의 인물상의 변용을 찾아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락국기」 신화에서 허황옥은 당당하고 진솔되며 백성을 사랑한 여성이었다. 신화에 나타난 그녀의 이러한 면모는 김 정희의 현대소설에서 ‘라뜨나’라는 여성인물로 더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녀는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보살핌의 소유자, 공동체에 헌신한 구체적

* 이 연구결과물은 2019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인물상으로 그려졌다. 또한 그녀는 경험 모성을 통해 이방인으로서의 낯섬을 해소하고, 역동적 리더십을 펼쳐 하늘의 계시를 이룬 통과의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라프나(허황옥)의 이러한 여성상이 오늘날 남녀 누구에게서나 발휘되어야 할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바라보았다.

주제어 : 가락국기, 허황옥 서사, 신화적 상징, 변용, 모성, 통과의례, 리더십

I. 들어가며

「가락국기」건국신화는 김해의 금관주지사였던 김양일의 찬술본(撰述本, 1076년)이 있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일연은 『삼국유사』권 제2, 「가락국기」에서 “금관지주사문인이 찬술한 「가락국기」를 초략하여 싣는다”¹⁾고 하였다. 현재 가락국 건국 서사는 『고려사』『삼국유사』『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에 전하고 있다.²⁾ 이들은 건국시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³⁾,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허황옥 관련 서사가 『삼국유사』에만 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 풍부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가락국기」이다.

-
- 1) 일연, 『역주 삼국유사』, 이병도 역, 한국학술정보, 2012, p.91. (“文廟朝 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 2) 『고려사』 志 卷第11, 지리 2, ‘경상도 금주’ 부분에 가락국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경상도지리지』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초자료로 편찬된 것으로 가락국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재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김해도호부’에 가락국의 이야기가 전한다. 이들 기록에는 허황옥에 대한 서사가 빠져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만 허황옥 서사가 나타난다.
 - 3) 『고려사』에서는 신라 유리왕 18년으로, 『삼국유사』에서는 후한 광무 18년과 신라 유리왕 즉위 19년을 병기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후한 광무제 18년 임인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황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병모가 허황옥 설화를 바탕으로 ‘꺾관적 실재’를 논구한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던 때부터이다. 그는 1987년 「가락국 허황옥의 출자」⁴⁾를 단초로 허황옥의 실제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김수로왕비 허황옥』⁵⁾과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⁶⁾는 허황옥의 역사적 실재를 밝힌 연구들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수로왕의 연구」⁷⁾ 또한 수로를 실제 인물로 상정하고 사회문화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김태식⁸⁾은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에서 “허왕후 신화가 엄연한 역사 자료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신이성으로 인하여 역사학자보다는 국문학자, 아동문학가 등의 이야기 소재로 남아 있었다고 논의하면서 가야사와 허왕후 신화를 연관 지어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창식⁹⁾은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에서 “김수로 신화에서 허황옥 신화로 바뀌 읽기”를 제의하여 “고종의 작업과 팩션(faction)의 장르적 인식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다. 송희복¹⁰⁾ 또한 “외국 소설의 캐릭터로 거듭난 김해의 두 여인—허황옥과 백파선¹¹⁾—을 대상으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두 사람을 드라마와 뮤지컬 주인공

4) 이 논문은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에 실려 있다고 김병모의 「김수로왕 연구」(『민족과 문화』 제6집,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7)에서 전한다.

5) 김병모, 『김수로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사, 1994.

6)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7) 김병모, 앞의 논문, p.209.

8)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제102집, 한국사연구회, 1998.

9) 이창식,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제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10) 송희복, 「외국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 허황옥과 백파선」, 『국제언어문학』 제38집, 국제언어문화회, 2017.

11) 2007년 주한인도대사인 N. 파르파사라띠(N. Parthasarathi)는 역사소설 「비단 황후」를 창작하였다. 무라타 키요코(村田喜代子)는 일본의 소설가이다. 그는 실존 인물인 백파선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 「용비어천가」와 「백년가약」이 그것이다.

공으로 제작하여 이것이 신(新)한류와 문화콘텐츠의 재창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가락국기」 신화는 위의 선학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역사와 신화, 문화의 영역을 아우르는 팩션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국신화의 역사적 주인공인 수로 대왕은 크게 변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허황옥의 여성상은 변용의 정도가 크다.¹²⁾ 이는 서사의 개작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³⁾ “옳김”이라고 편찬 의도를 밝힌 것이거나 역사적으로 객관화시키고자 하는 서사에서는 아무래도 인물의 변화폭이 적을

12) 여성의 변용 정도가 큰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회문화사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13)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신화를 전승하고 있는 작품들을 동화부터 소설까지 시간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차운재(2000),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 주식회사 웅진닷컴.
- ② 우리역사연구회(2003), 황금알에서 태어난 김수로왕, (주)한국슈바이처.
- ③ 박종한(2004), 김수로왕 가야를 세우다, (주)한국퍼킨스.
- ④ 비키 레온/ 손명희(2005), 고대의 못말리는 여자들, 꼬마이실.
- ⑤ 김경희(2008), 김수로왕과 가야국, 삼성비엔씨.
- ⑥ 역사인물편찬위원회(2009), 황금알 왕국 김수로왕, 역사디딤돌.
- ⑦ 김경민(2010), 철의 아들 김수로, 눈과마음.
- ⑧ 박영규(2010), 김수로왕과 비밀의 나라 가야, 김영사.
- ⑨ 안형모(2010), 철의 왕국 가야와 김수로, (주)재미박스.
- ⑩ 김 정(2012),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 ⑪ 형설아이(2012), 5000년 한국여성위인전, 허황후, 형설출판사.
- ⑫ 우리역사연구회(2014), 김수로왕 금관가야의 시조가 되다, MLS.

이들은 원전을 동화로 옮기거나, 객관화된 역사물과 허구의 서사를 혼용한 것, 또는 원전을 소설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전을 옮긴 것으로 표기된 작품들도 원전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가 있으므로 그 속에서 허황옥의 서사는 얼마나 변용을 겪고 있는지, 겪지 않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황옥의 원전 서사가 변용된 경우에는 그것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다. 이것은 역사성을 토대로 한 편찬자와 출판사의 의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허황옥의 여성상 변용은 편집위원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객관과 사실을 추구하는 작품들보다는 개인 창작물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허황옥을 중심에 둔 서사가 소설로 등장하고, 원전을 또 다르게 재창작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허황옥에 대한 이미지 변신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원전을 ‘옳긴 것’을 넘어서 작자의 창의를 의해 현대물로 변용된”¹⁴⁾ 작품들은 대표적으로 안형모(⑨)의 만화, 김경민(⑦)과 김 정(⑩)의 소설이 있다. 김경민과 김정희의 현대소설은 서사 속 자아와 세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김 정의 소설은 허황옥 중심의 현대물이라는 점에서 원전과의 달라진 그녀의 인물상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하다.

인물상은 개인과 세계의 관계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김정호¹⁵⁾는 허황옥의 서사 속 그녀의 삶에 집중하였고, 그녀를 수로의 아내로서 그 몫을 다하고 삶의 한 과정을 거쳐간 여성인물로 바라보았다. 김원희¹⁶⁾는 “「가락국기」 신화를 난생신화로 명명하며, 난생의 상징을 고구하였고, 이러한 상징성은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생명 생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성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상란¹⁷⁾은 “「여성신화의 원리」에서 신화 속에서 여성의 원형적 심상을 재구해 혼란에 빠진 현대의 여성 정체성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여성 존재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위 연구들은 여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난 연구이다. 앞서 논의한 바처럼 ‘생명 생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

14) 조성숙, 「「가락국기」 신화의 전승에 나타난 생태적 관점과 의미」, 『민족문화』 제47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p.9.

15) 김정호, 『이야기문학과 여성연구』, 민속원, 2005.

16) 김원희, 「난생신화와 창조적 여성성」, 『한국문화와 창조적 여성성』, 푸른사상, 2013.

17) 박상란, 「여성신화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19집, 한국문화연구학회, 1997, p.462.

성'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소설에 나타난다면 신화의 허황옥이 소설에서 변용될 때 그 서사 골격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박상란의 견해에 힘입어 소설에서의 변용된 허황옥 여성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신화에서 드러난 '허황옥'의 여성상을 찾아보고, 신화의 '허황옥'의 이미지가 현대소설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고찰하여 그 변용에서 나타나는 의미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락국기」 '허황옥'의 여성상

대부분의 『삼국유사』 「가락국기」 신화를 김수로 신화 또는 수로 신화라고 한다. 김용환¹⁸⁾은 '허황옥 설화'를 '수로왕비 설화'라고 칭하여 "수로의 중심에서 가야 설화의 문화콘텐츠 방향을 모색하며 <수로왕비의 바다 여행> 등의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하였다.

반면에 서대석은 "가락국 건국신화는 <김수로 신화>와 <허황옥 신화>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¹⁹⁾ 김진섭 또한 "허황옥의 이야기는 수로신화에서 함께 전하지만 수로신화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별개의 허황옥 신화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²⁰⁾고 하였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수로왕과 결혼한 후에도 한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²¹⁾고 평가하고 있다.

18) 김용환, 「경남권 킬러 콘텐츠 소재 연구: 가야 설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8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9)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127.

20) 김진섭, 『신화는 두껍다』, 지성사, 2018, p.478.

21) 김진섭, 위의 책, p.478.

어느 누구를 중심에 둔 연구시각이나에 따라 그 명명(命名)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허황옥 신화>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광수에 의하면 “허황옥 신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신화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²²⁾고 한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를 신화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 필요성이 어떤 역사적 사실로 무르익자²³⁾, 후손들은 그를 신격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의 배우자를 물 혹은 땅에서 나온 존재로 만들었다는 주장”²⁴⁾을 통해 허황후는 ‘어떤 수모신(水母神) 원형’²⁵⁾이라고 한다. 「가락국기」 신화에서는 허황옥이 수로왕에게 자신이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직접 소개한다. 이 부분과 허황옥의 시호인 ‘보주태후’를 바탕으로가락국 도착 전의 그녀의 존재와 문화는 「가락국기」의 신화적 상징을 해석하고 역사적 실재를 고증하는 작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²⁶⁾

22) 그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기본 뼈대에 「금관성 파사석탑」과 장유화상의 불교 전래 이야기가 보태지고, 아들 열 명 중 첫째는 수로왕의 뒤를 잇고 둘은 허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나머지 일곱은 하동 칠불사에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 두 딸이 일본국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고대 한국과 인도의 접촉을 설화 차원에서 보여주는 5편 중에서 유독 허황후 이야기가 사실로서의 역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p.12)

23) 이광수는 “허황옥은 15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역사적 실재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종 때는 이미 허황옥은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분명하게 이해되었고, 그에 결부된 전설 또한 분명한 근거로 받아들였다”(앞의 책, p.70)고 이야기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려 문종 때 「가락국기」에 나오듯 유전과 신귀 등이 허황옥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왕후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재촉하여 임금에게 고하려 했던 것을 본 따서 경주놀이를 행하는 민속놀이가 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앞의 책, p.76) 이후 오늘날은 김해 지역의 관광자치산업의 부흥으로 허황후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사실성은 더욱 부각되어 허황후의 혼례행사가 행해지고 있다.

24) 이광수, 앞의 책, p.20.

25) 이광수, 앞의 책, p.58.

수로의 경우는 ‘난생 자체가 바로 등극이고, 탄생제의가 바로 등극제의’²⁷⁾이다. 왕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늘이 앞서 왕을 맞으라고 명령한 것은 수로의 신성이 곧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이다. 수로는 “직접 하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강력한 카리스마를 전하고 있다.”²⁸⁾ 「가락국기」에서 그는 궁궐의 건축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농한기 때까지 기다리며 백성들의 곤고를 더 살피는 인물로 서사되었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革故鼎新) 규례”²⁹⁾를 우선적으로 제도화한 건국주였다. 수로는 이 사건들에 의해 인간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상징되었다.

왕이 가로되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요 나의 배필로 후(后)가 되는 것도 또한 하늘의 명령이니 그대들은 염려치 말라 하고 드디어 유천간을 명하여 경주(輕舟)와 준마(駿馬)를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³⁰⁾ …… 왕이 대답하되 나는 生來로 자못 신성하여 먼저 공주가 멀리 올 것을 알고 신하들의 납비(納妃)의 청을 듣지 않았더니³¹⁾

위의 글에서 보듯이 수로 대왕은 ‘앞날을 예견하고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탈해와의 변신술 내기에

26) 대표적으로 김병모가 허황옥의 출신지를 인도의 아요디아에서 중국 사천성 보주 지역으로 옮긴 허씨족이 다시 가락국으로 이주해 온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용환(앞의 논문, p.144)은 허황옥의 인도 도래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27) 고운기, 『신화 리더십을 말하다』, 현암사, 2012, p.258.

28) 김진섭, 앞의 책, p.454.

29) 일 연, 앞의 책, “斯所以革古鼎 新設官分職之道歟”, p.93.

30) 일 연, 앞의 책, “王曰 朕降于茲 天命也 配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遂命留天 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p.92.

31) 일 연, 앞의 책, “王答曰 朕生而頗聖 先知公主自遠而屈 下臣有納妃之請 不敢從焉”, p.93.

서 승리한 ‘신과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이다.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인 수로 대왕이 ‘하늘의 계시를 통해 세워진 왕’이라는 것과 혼사에 대한 그의 예지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필로 계시된 허황옥도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자’로 담보되었다.

신화의 허황옥은 신이한 꿈을 꾸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 거친 바다를 건넜다. 표정옥은 이것을 “내적으로 강인한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장치”³²⁾라고 하였다.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수로 대왕이 아니라 오히려 허황옥이 하늘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한 통과 의례자로서의 역경을 겪는다. 수로 대왕이 하늘의 뜻대로 인간 세상의 결여를 메꿔가는 과정에 또는 신성성의 완성 과정에 허황옥의 고난의 서사가 내포되어 있다.

허황옥은 가락국에 도착하였을 때 “나와 너희들은 본래 아지 못한 터인데 어찌 경솔히 따라가랴.”³³⁾ 하며 수로왕이 직접 맞이하길 요구하였다. 허황옥의 이와 같은 행동은 여성에게 주어진 일상적 제도의 습관을 뛰어넘는다. 그녀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당당함이 있다. 이는 수로에게 꿈의 내용을 전하는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나는 본래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이나 나이는 16세라 금년 5월에 본국이 있을 때 부왕이 황후로 더불어 나에게 말씀하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뵈오니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기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어 등극케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신성스러운 이다.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리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잠을 깨인 후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거기로 가라 하시었다.

32) 표정옥, 「아름다움의 서사를 활용한 기이함과 신성성의 기호학적 소통 구조 연구 - 『삼국유사』 속 여성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1집, 기호학연구, 2012, p.258.

33) 일 연, 앞의 책, “王后乃曰 我與[爾]等素昧平生 焉敢輕忽相隨而去”, p.92.

그래서 내가 바다에 떠서 증조(蒸棗)를 구하고 하늘에 가서 반도(蟠桃)를 얻어 진수(螭首)로 외람히 용안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하였다.³⁴⁾

표정옥은 위의 “꿈의 구조는 허황옥의 신성성 전략을 구사한 것”³⁵⁾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신화적 운명을 통해 드러나는 수로에 대한 그녀의 진솔함도 있다. 자신은 누구이며 왜 가락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은 하늘이 정한 수로의 배필로서의 신성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 이것은 「가락국기」 신화의 문맥적 이해에 기댈 때 허황옥은 하늘이 정해진 인연을 찾아 스스로 먼 길을 온 도전적인 여성이라는 신화화된 심층적 이미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전통적 여성상에 관습화된 일상성을 벗어나 당당함과 진솔함을 갖춘 도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속 허황옥의 또다른 이미지는 “왕이 후(后)로 더불어 거함이 마치 하늘이 땅을, 해가 달을, 양이 음을 가진 것과 같고 그 공은 도산(塗山)이 하(夏)를 돕고 당원(唐媛)이 교씨(嬌氏)를 일으킴과 같았다”³⁶⁾라는 데에서 읽을 수 있다. 앞의 서술을 통해 “이들의 결혼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결합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롭고 생산적인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의 황후가 되고 나서야 가야는 나라의 제도와 문물이 정

34) 일 연, 앞의 책,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蒞家邦 未定匹偶 卿等湏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形開之後 上帝之言 其猶在耳 爾於此而忽辭親向彼乎 往矣 妾也 浮海遐尋於蒸棗 移天復赴於蟠桃 螭首敢叨 龍顏是近”, pp.92-93.

35) 표정옥, 앞의 논문, p.260.

36) 일 연, 앞의 책,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月 陽之有陰 其功也 塗山翼夏 唐媛興嬌”, p.93.

비되고 관직과 가옥이 정비된다.”³⁷⁾ 허황옥은 수로가 가락국의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아 “돕는 배필로서의 허황옥”³⁸⁾을 상징한다.

한편, 「가락국기」 신화에서 수로 대왕은 “지금 현숙한 그대가 저절로 왔으니 이 사람의 다행이라 하며³⁹⁾” 허황옥을 맞이하였다. 수로 대왕이 허황옥의 여성상을 평가하는 유일한 말이 역주에서는 “현숙(賢淑)하다”, 원문에서는 “淑質”로 나타나 있다. “현숙”은 “마음이 어질고 바르다”이며, “숙질”은 “선량한 성질”로 풀이된다. 이것으로 허황옥의 인물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녀가 죽은 후 “백성들은 땅이 무너진 것과 같이 서러워했다”⁴⁰⁾고 「가락국기」에 전한다. 백성들은 “왕후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여”⁴¹⁾ 그녀가 처음 가락국에 도착한 장소들에 ‘주포촌’ ‘능현’ ‘기출변’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고 한다. 이것은 그녀가 가야 백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마음이 어질고 바름으로 사후에까지도 백성들에게 추앙 받는 여성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상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 건국신화가 여성 주인공 허황옥을 통해 보여준 신화 속 여성모형을 살펴보았다. 신화는 허황옥을 당당하고 도전적인 여성, 돕는 배필로서의 삶과 백성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내재된 여성으로 그렸다. “하늘의 순리대로 왕비가 되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드러낸 평면적 짜임”⁴²⁾ 위에 “허황옥의

37) 표정옥, 앞의 논문, p.261.

38) 김정호, 앞의 책, pp.36-47.

39) 일 연, 앞의 책, “今也淑質自臻 眇躬多幸”, p.93.

40) 일 연, 위의 책, “國人如嘆坤崩”, p.93.

41) 일 연, 위의 책, “遂欲不忘子愛下民之惠”, p.93.

42) 김정호의 견해를 가지고 옴(앞의 책, p.43).

출현은 신성의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서사(아유타국 공주 → 바다 건너움 (통과의례) → 건국주의 아내 → 죽음)에 복잡한 수난이 없으며 적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⁴³⁾ 소설에서는 갈래의 특성상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양상이 복잡해졌고, 갈등 또한 심각하다. 그리하여 신화의 구체성을 확보한 소설에서의 허황옥의 여성상은 어떠한지를 Ⅲ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Ⅲ. 『허황옥, 가야를 품다』에 나타난 ‘라뜨나’의 모성원리

본 논문에서 ‘변용’이라 함은 고전 서사를 수용하는 측면도 포함된다. 전체 또는 부분을 수용하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전복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패러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락국기」를 패러디한 작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현대적으로의 변용이란 신성하게 믿어지던 공동체의 신화가 현대인의 사유로 부정된다는 것이다. 자연히 훗날의 작품들은 원시 고대인들의 사유방식을 허구라고 바라보며 개연성을 입힌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는 원전과는 달라진 서사의 흐름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다.”⁴⁴⁾

고전 작품의 변용은 원전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리치는 신화를 ‘현재의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거의 사건들에 관한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⁴⁵⁾ 오늘날 김수로와 허황옥에 대한 종교적 의례도 문화행사로 복원되어 가락국기 서사의 신화적 문화 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나 문화 콘텐츠화된 상품에

43) 김정호, 앞의 책, p.47.

44) 조성숙, 앞의 논문, p.9.

45)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2017, pp.21-22.

서 의례와 신화의 친밀성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스토리텔링은 성스러운 이야기로까지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의 결과로 앞으로도 김수로 대왕과 허황옥의 이야기는 허구화된 또다른 서사들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해시는 허황옥에 관한 문화콘텐츠개발 방안 중 허황옥 전승 관련 만화와 e-book도 함께 창작하였다. 특히 한국 관광부가 주최하여 2008년부터 시작한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의 주관단체로 선정된 김해 여성복지회는 허황옥을 배경으로 제작한 연극 『가야 여왕 허황옥』을 이주여성이자 모험가로 차와 불교를 전해준 문화인으로 조명하였다.”⁴⁶⁾

이와 같이 허황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그녀 중심의 작품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김 정의 『허황옥, 가야를 품다』⁴⁷⁾는 허황옥을 주인공으로 한다. 허황옥은 소설에서 ‘라프나’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김수로 대왕의 신성함을 통해 허황옥에게 매겨진 ‘신이하고 거룩한 시공간의 초월적 요소’는 감해지고 그녀의 모성 경험을 부각시켜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라프나는 아유타국을 탐하던 월지족과의 정략결혼을 피해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아유타국을 돕기 위해 한나라에서 상단을 꾸렸다. 그러나 그녀와 그 일행은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시 떠돌아야 했고, 그들은 거친 바다를 건너 마침내 가락국에 도착하였다.

「가락국기」 신화에서 허황옥의 이방성은 그녀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의례를 치렀다는 데서 발견된다⁴⁸⁾. 송효섭⁴⁹⁾은 “허황옥의 이와

46) 이창식, 앞의 논문, p.33.

47) 김 정,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2012.

48) 일 연, 앞의 책, “解所著綾袴爲贊. 遺于山靈他”, p.92.

49) 송효섭, 「초월성의 기호학 -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읽기」, 『기호학연구』 제8집

같은 행위를 신성한 것에 맞닿은 제의적 절차”로 보았고, 김진섭⁵⁰⁾은 “외래인이 현지 토착신에게 행하는 의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봉일⁵¹⁾은 “허황옥 일행이 산신제라는 북방문화를 정신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들은 허황옥이 “멀리서”⁵²⁾ 온 존재, 가락국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공통전제로 두고 펼친 견해들이다.

신화 속 허황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성혼을 통하여 왕후가 되었고, 가락국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라뜨나는 백성들의 어머니로 자리잡기까지 세계와의 심각한 대결에 직면하였다. “잉신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야 사람들은 아유타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거나 걸음을 빨리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가야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⁵³⁾ 이처럼 이방인이라는 조건은 극복할 수 없는 그녀의 결여였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례가 소설에서 모성원리⁵⁴⁾로 치환되어 있다. 그녀의 통과의례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극복하고, 아도간과의 대결 해

1호, 한국기호학회, 2000, p.24.

50) 김진섭, 앞의 책, p.480.

51) 이봉일, 「신화와 역사의 간극에 대한 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집, 국제한인문학회, 2014, p.196.

52) 일 연, 앞의 책, “王答曰 朕生而頗聖 先知公主自遠而屈”, p.92.

53) 김 정, 앞의 책, p.71.

54) “모성적 원리는 쟁취나 도전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는 통합과 조화의 원리”(정영자,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전개과정과 전망」, 『여성과 문학』 제2집, 1990, p.303)라는 점을 전제한다. 오늘날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비판받는 반면에 여성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누구나 모성적 사유를 내재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대현(「성기성물(成己成物): 리더십의 여성주의적 가치」,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은 이것을 “공동체의 상생과 평화를 위해 대표적 여성주의적 가치”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성기성물(成己成物, 나의 완성과 만물의 완성이 맞물려 있다)로 바라보고 성기성물적 리더십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원들을 향하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타난다”(p.58)고 보았다.

소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맥락이 형성된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모성원리이며 모성원리는 서사의 골격으로 작동한다.

라뜨나는 타국에서 “두려움에 떨 때마다 어머니가 하던 말들을 떠올리며 어머니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⁵⁵⁾고 다짐하였다. 이때는 라뜨나가 수로와 혼인하기 전이지만 그녀의 독백은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맺게 되는 어머니와의 유대와 공감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적 자아로서의 여성 정체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⁵⁶⁾는 것을 알게 해준다.

라뜨나는 말없이 걸었다. 움집을 몇 군데 더 돌아보았다. 다른 집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병자들은 악취를 풍기며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먹을거리가 없었다. 라뜨나의 눈에 눈물이 핑돌았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구나. 우리의 침술로 병자들을 돌보자.”

“공주님, 가야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사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봐야지. 저 모습을 보고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중략)……

라뜨나는 움집에서 보았던 병들고 외로운 노인과 배고파 우는 아이, 그리고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종일 조개와 굴을 채취하는 아낙네들의 팍팍한 삶이 안타까웠다. 한 끼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105-107)

위의 글에서 보듯이 라뜨나는 백성들을 돌보는 강하고 현명한 어머니상으로 서사되고 있다.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내고자 하

55) 김 정, 앞의 책, p.25.

56) 양민석, 「모성의 사회적 확장과 여성 리더십」,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102-103.

는 그녀의 모성적 사유 능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조건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희생과 라뜨나의 돌봄 행위는 강요당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타자를 온전히 포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뜨나는 백성들의 역병을 치료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녀의 보살핌은 역병이 물러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아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병자가 줄어들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는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내려오신 분이예요.”

라뜨나가 사는 곳이면 어디라도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네들은 라뜨나의 손을 잡고 절을 하며 고마워했다.

“오라버니, 병자들이 제대로 먹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구휼미를 풀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곡물을 나눠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리하자꾸나.”

락슈마나가 하인들을 불러 곡물 창고를 활짝 열게 했다. 역병은 나왔으나 굶주림으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라뜨나의 집으로 몰려왔다.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가야의 어머니라 칭송하는 소리가 나왔다. (221-222)

허황옥의 보살핌은 공간을 열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라뜨나는 가부장제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도적 모성을 뛰어넘는다. 그녀에게서 ‘자원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느껴진다.

이것은 라뜨나의 일행이 가야국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아도간⁵⁷⁾의 딸

57) 아도간 족장은 라뜨나 일행을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아지’를 왕후 자리에 앉히고자 라뜨나 일행에게 이방인의 설움을 가중시켰고, 누명

(아지)을 살뜰히 보살피는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봤을 때의 느낌처럼 아지는 예민하고 불같은 성미를 가진 소녀였다. 날마다 보다시피 하는 라뜨나가 친숙하게 여겨질 법도 한데, 하녀 대하듯 했다. 직접 병을 시료한 아드리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건넬 줄 몰랐다. 아지는 아도간 족장의 성격을 많이 닮은 딸이었다. 라뜨나가 족장의 집 안채에서 아도간 족장을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라뜨나는 아도간 족장이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가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도간 족장의 부인이 시료를 끝낸 라뜨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 아지 아가씨가 빠르게 차도를 보이니 다행입니다.”

“아가씨는 참으로 마음씀씀이가 깊고 따뜻하군요.”

부인은 라뜨나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중략)……

부인은 라뜨나를 좋아했다. 윤기가 흐르는 피봉 빛나는 큰 눈과 새까만 비단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날씬한 몸매의 라뜨나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지를 시료하는 라뜨나가 무척 고마웠다.

“성실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아도간 족장의 부인은 라뜨나에게 종종 호감을 드러냈다. 라뜨나 또한 어머니를 대하듯 부인이 편안했다.(122)

아도간 족장의 부인은 라뜨나의 인간주의적 사랑을 “마음 씩씀이가 깊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모성이 갖는 특성이다. 아도간 일행은 라뜨나의 돌봄을 경시하고 문제를 삼아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라뜨나는 “모성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는 평화 · 보살핌 · 나눔”⁵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까지 씌워 가락국에서 쫓아내고자 했던 인물이다.

- 58) 정지영, 「한국 가부장제의 역사와 모성」,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151. 정지영은 이 글에서 모성을 여성 리더십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이전에 넘어야 할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장벽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라뜨나는 움집에서 보았던 병들고 외로운 노인과 배고파 우는 아이, 그리고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종일 조개와 굴을 채취하는 아낙네들의 팍팍한 삶이 안타까웠다. 한 끼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107)

이방인들이 병을 고쳐주고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일거리를 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아이 딸린 아낙네나 수족을 마음대로 못 쓰는 늙은이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 사람들은 경계를 하면서도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이방인들이 한 말이 진심이더라. 여그 내 이빨 썩은 데 보이지? 고 요상한 침 맞고는 아픈 게 짝 가셨다.”

“아기도 봐 주는 사람이 있고 품삯도 제대로 쳐주니 일할맛 난다니까.”

붉은 깃발의 이방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날로 늘었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 받는, 힘없는 사람들이었다. 라뜨나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다. 역시 진실한 마음은 통했다.(110)

라뜨나는 위와 같이 먼저 가야 백성들의 곤고하고 팍팍한 삶에 공감했다. 그녀는 백성들이 가난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돌봄을 통한 친밀함으로 다가가 오히려 그들이 라뜨나에게 공감하도록 하였다. 곧 “다른 사람들, 다른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 주목”⁵⁹⁾한 라뜨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모성에 내재된 관계적 자아로서의 라뜨나를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이 갖는 낯섦에 대한 배척을 뛰어넘어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스스로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뜨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도간 족장도 따라 일어섰다.

“수로왕께 가지 않고 족장에게 온 이유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 진정 가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권력 때문에 나라를

59) 정대현은 신사임당의 예를 들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 주목하지 못하고 개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기성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p.55).

좀먹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검은 손들을 뿌리치고 나라를 위해 당당하게 살 것인지 말합니다. 수로왕께 족장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로왕께 직접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가야의 수로 대왕과 아도간 족장간의 일, 가야 내부의 사정이니깐요. 하나 우리한테 모든 증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뜨나는 아도간 족장을 낯선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도간 족장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부의 분열이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단은 가야의 적이 아닙니다. 아도간 족장님, 우리 아유타인들이 가야를 사랑하고 수로 대왕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한다는 것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끝낸 라뜨나는 아도간 족장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230)

두 번째로 라뜨나의 모성원리의 작용은 아도간의 극도의 간사함에 대응하는 위와 같은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아도간의 ‘구성의 오류’⁶⁰⁾가 가야국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여다 본 것이다. 위에서 라뜨나는 개인의 합리와 가야국 전체의 유익이 하나 되도록 이끈 구성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그녀는 평등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상상력과 이념이 그 어떤 부정적 힘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개진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힘을 실어주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비록 아도간 족장과 평탄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라뜨나는 그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한다.

라뜨나는 기존의 질서에 자신의 이방성을 꿰맞추기 위하여 주춤거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야국의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존재로 지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상처가 되어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았음을 아도간과의 갈등 해결 국면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라뜨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여성이 갖는 가치적 특성 중 ‘유대’라는 공통분모를 강하게

60) 개인에게는 옳으나 전체에게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구성의 오류’ 또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한다.

드러내고 있다.”⁶¹⁾ 이것은 생물학적 이분법적 틀 속에서 여성성의 미학적 특성으로 매겨진 관계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제도로부터 강압된 모성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라프나가 혼란한 주변 상황을 통찰한 데에서 나온 그녀만의 자질이라고 했을 때, 이는 그녀의 모성적 사유에서 발현된 경험 모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성적 사유는 “보살핌의 관계적 속성”⁶²⁾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라프나의 주변을 꿰뚫는 통찰 또한 모성이 지니는 가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프나의 모성 원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비전을 열어준 것이다. 이것은 수로 대왕에게 종속된 삶을 살지 않는 그녀만의 삶의 방향성에서 읽을 수 있다. 라프나는 수로왕에게 의존하거나 아도간과 가락국 백성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의 권력에 기대지 않았다.

유천간 죽장을 따라 궁으로 들어간 라프나는 수로왕을 만났다.

“아니 되오. 왜국은 멀고 먼 길이오. 허 대인 없이 그대가 직접 가겠다니 그대는 여인의 몸이잖소. 더구나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한나라와도 다르고 우리와도 많이 다르오. 내 비록 왜국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알고 있소이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사나운 나라에 절대로 아가씨를 보낼 수 없소.”

“대왕마마, 소녀 나이 열여섯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이옵니다. 교역 경험 또한 많사옵니다. 열 살 때 고향을 떠나 오라버니와 함께 상단을 꾸려보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교역하였사옵니다. 한나라에서 이곳 가야로 오는 뱃길 또한 건디었습니다. 여인이라 안 된다는 것은 단힌 생각이옵니다.”

61) 김광웅(『미즈 프레지던트』, 2012, p.215)은 “클라인, 콜레트, 아렌트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여성의 가치적 특성은 첫째 유대, 둘째 회열로서의 사유, 셋째 시간에 대한 이해 등이라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다”고 전해주고 있다.

62) 보살핌의 관계적 속성이란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상황, 그 필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융통성과 상황 적응성으로서, 개별적 상황의 특수성에 적합한 행동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합리성을 말한다(양민석, 앞의 논문, pp.97-98).

수로왕은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씩씩하게 말하는 라프나를 잠시 낯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147-148)

소설 속의 라프나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왜국과의 무역에 앞장설 만큼 주체적인 여성으로 발전하였다. 가야와 왜국과의 철을 통한 무역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물품을 개발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왜국과의 무역을 통해 “아이들이 큰 꿈을 꾸도록 탄탄히 기반을 잡아 주어야 한다.”⁶³⁾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프나의 “모성은 사회적 지향점들의 지렛대가 되어주고 그 실천의 구체적 전망을 이끌어”⁶⁴⁾ 준 것이다. 모성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화의 요소를 가지므로 라프나가 왜국과의 무역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그녀가 가락국의 백성들을 돌보고 아도간과의 상호보완되었던 모성 경험의 역동적 변화이다.

가야 백성들은 라프나를 ‘가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낯선 이방 여인으로서는 주변적 존재였던 라프나는 모성적 원리로 가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가부장제 속에서 더욱 강조된 가치가 모성이었고, 이것이 사회 구조에 이용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아유타국 공주로서의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여 당차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지위를 가락국의 공동체 회복에 힘쓴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주의를 넘어 만물의 이음을 아우르는 생태주의로까지 나아간다.”⁶⁵⁾

「가락국기」 신화뿐만 아니라 현대소설에서도 하늘의 계획은 허황옥이 김수로의 배필이 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부모를 떠나 가야국

63) 김정, 앞의 책, p.254.

64) 양민석, 앞의 논문, p.99.

65) 정대현, 앞의 논문, p.28.

으로 오게 된 것은 공통된다. 하지만 현대소설에서는 신화에서처럼 두 사람이 만나 일정한 의례를 행했다고 하여 왕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도간 일행과의 극도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방인이었기에 가야국 백성들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했다. 허황옥은 자원하는 경험 모성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가락국의 왕후가 되었다. 따라서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부각된 그녀의 모성 원리는 곧 왕후가 되는 그녀의 제의적 절차였으며 서사의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여성상 변용으로 읽는 리더십

「가락국기」의 여성 주인공 허황옥의 변용 인물, 라뜨나는 그녀의 왕후로서의 사회적 지위보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라뜨나를 삶의 주체자로 본 ‘허황옥 신화’의 현대적 변용 서사는 새로운 모성으로서의 경험을 부각시키며 ‘라뜨나’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통과의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였다.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낳는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통과하려면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은 양다리를 걸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곳이고 불확실성의 상태이다. 불확실성의 상태에서는 역할이 혼돈되고 심지어는 역전된다. 따라서 경계선에 놓이면 혼돈된 역할 때문에 통상 터부에 둘러싸이게 된다.⁶⁶⁾

이와 같이 경계선에 놓인 이방인으로서의 라뜨나의 양가적 지위, “성스러움과 터부”⁶⁷⁾는 가락국을 향한 그녀의 모성원리로 나타나 가락국의 어

66) 에드먼드 리치, 앞의 책, p.35.

머니로 칭송받게 되었다. 통과의례에서 의례자는 먼저 대립되는 두 항 중 기존의 상태, 기존의 지위에서 분리되고, 이어 의례자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주변적 상태에 놓여지며, 마침내 대립되는 두 항 중 새로운 상태, 새로운 지위로 통합된다.⁶⁸⁾ 구간과 가락국 사람들은 라프나를 불완전한 타자로 자리매김하여 기존의 질서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변인으로 머물게 하였지만 라프나는 “생명, 상생, 소통, 평화 가치”⁶⁹⁾를 바탕으로 현실적 모성 원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서사되었다. 대부분의 영웅들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듯이 신화 속 허황옥도 신의 계시에 순종하여 험한 바다를 건너 가락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겪었으나, 소설 속 라프나는 더 확장된 시험들을 자각적이고 자원적인 경험모성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라프나의 모성 원리 또한 제도화된 것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수많은 사회에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그것은 모성적 활동을 자녀의 안녕을 위해 건강, 쾌락, 야망과 같은 어머니의 희생을 불필요하리만큼 과도하게 요구하는 소모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한다.”⁷⁰⁾ 또한 “모성의 경험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도구화·미화되고 신화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과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고 이해된다. 모성이 근대사회의 산물임을 상기해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화를 벗어난 이해가 가능한가”⁷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

67) 에드먼드 리치, 앞의 책, pp.34-35. (“전 세계의 신화와 습속에서 중간적 상태(경계적 영역)는 성스러운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8) 에드먼드 리치, 위의 책, p.35.

69) 정대현은 “이상적 어머니란 자녀와 더불어 서로를 완성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전망을 가지면서 자신과 자녀의 최선이 이웃들과의 유대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며, ‘생명, 상생, 소통, 평화 가치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p.37).

70) 사라러딕 저,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2002, pp.75-76.

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성은 그동안 신화적 포장 속에서 은폐되어온 여성 억압의 중심에 있었다. 소설 속의 라프나 또한 그녀의 통과의례 중 하나가 돌봄 양식이었다는 것에서, 그것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적 모성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게 한다.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압축된 인고하는 모성상은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모성적 사유의 관행이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돌보는 것과 상생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에 모성적 사유능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백성들을 곤고한 처지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하는 고민과 그에 따른 창의적 발상과 실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에게 모성의 의지가 요청된다. 백성의 삶을 품고 그들의 꺾진(乏盡)한 생활이 전복되도록 노력하는 고민의 과정에 모성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쉽지 않다. “사회 전체에 돌봄 정신과 시민성이 확산된다면 그 사회에 속한 개개인이나 집단들이 커다란 노력 없이도 소통과 갈등해결, 그리고 진정한 ‘발전’의 기반을 이루게 될 것”⁷²⁾이다. 이것은 “리더의 이름과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성원들의 이름은 맞물려 있다”⁷³⁾는 성기성물(成己成物)적 리더십⁷⁴⁾의 특성이다. 라프나의 통과의례적 모성 원리의 절차는 먼저 인간과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전망을 가지고 성원과 라프나가 서로 성장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주체와 사회

71) 양민석, 『글로벌 시민사회의 나눔 가치와 여성리더십』, 한국학술정보, 2012, p.21.

72) 윤혜린 외, 『여성주의 리더십, 새로운 길 찾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p.8.

73) 정대현, 앞의 논문, p.57.

74) “성기성물(成己成物)이란 나를 이름과 만물을 이름은 맞물려 있다는 명제로서 중용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정대현, 앞의 논문, p.23)이다. 정대현은 “성기성물적 리더십은 모성적 생활 양식에 실현되어 있다”(p.21)는 것을 통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원들을 향하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타난다”(p.58)고 하였다.

가 함께 변화해가는 모성의 변형력 속에서 여성주의 리더십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⁷⁵⁾ 따라서 가락국의 황후가 되는 하늘의 계시는 라프나에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발휘되도록 등치된다.

한편, 다양화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영역에서도 리더십이 발휘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즐거움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오늘날 기대한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 그러나 라프나가 보여준 경제와 교역에 대한 참신한 발상의 기저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해치고 개인의 이익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프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통찰은 긍정적 자아상이 잘 내면화되었기에 가능하다. “그래, 난 아유타 공주야!”⁷⁶⁾라고 되뇌는 라프나는 아유타국 공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야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낮은 분명 열등한 표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긍정적 자아를 통해 하늘의 뜻을 자신의 꿈으로 치환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라프나를 통해 ‘리더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긍정적 역할을 찾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설정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 상호보완적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성적 리더십의 자질이라면 소설에서 보여준 라프나는 모성원리가 구체화된 돌봄양식으로 리더의 자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75) 양민석, 앞의 논문, p.112.

76) 김정, 앞의 책, p.17.

V. 나가며

현전하는 자료 중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만 허황옥 신화가 전한다. 『삼국유사』 원전과 후대의 변용된 작품들은 김수로 신화와 허황옥 신화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가락국기」는 동화, 만화, 연극, 소설, e-book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주인공인 수로는 인물 변화가 크게 없으나 허황옥은 소설 갈래에서 그 인물상이 크게 변용되었다. 특히 김 정의 소설 『허황옥, 가야를 품다』는 허황옥(라뜨나)을 중심에 둔 서사이며, 신화와는 달리 험난한 통과의례를 거친 후 가락국의 황후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화에서 허황옥의 인물상을 찾아 그것이 현대소설에서 어떻게 확장 변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허황옥은 “당당하고, 진솔되며 도전하는 여성”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수로를 돕는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을 연구자는 신화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허황옥의 여성상이라고 보았다. 소설의 허황옥은 가락국의 황후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써 “이방인으로서의 극복”, “아도간과의 대결 해소”,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사되었다. 곧 이들 과정은 모성원리로 돌파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그녀는 가야국 백성들을 향한 모성을 표출하였으나 인고로 표상되는 전통적 어머니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관습화된 모성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의 중간자적인 삶을 모성적 사유로 돌파했으며 자각적이고 역동적인 경험 모성을 통해 하늘의 계시를 성취한 통과의례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라뜨나의 모성 원리를 제도화된 전형적인 여성의 본질로 고착시키지 말자는 주장과 더불어 남녀 누구에게나 추구되어야 할 자질로 바라보았다.

라프나의 자각적 자아로서의 성장은 오늘날 여성 각자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분열된 여성의 심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사로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현대 여성의 가치는 어떠한 모습일 때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라프나의 여성상은 남성 입장의 시각에서, 또는 여성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이는 사회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프나의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와 미래적 비전, 공감 능력은 새로운 리더십의 발굴과 실현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실마리를 지원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김 정,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2012.
『세종실록지리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일 연, 『역주 삼국유사』, 이병도 譯, 한국학술정보, 2012.

〈단행본〉

- 고운기, 『신화 리더십을 말하다』, 현암사, 2012.
김경민, 『철의 아들 김수로』, 눈과마음, 2010.
김광웅, 『미즈 프레지던트; 왜 시대는 여성 리더를 원하는가』, 파주: 21세기북스, 2012.
김병모, 『김수로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사, 1994.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김양희, 『여성, 리더 그리고 여성 리더십』, 삼성경제연구소, 2018.
김정호, 『이야기문학과 여성연구』, 민속원, 2005.
김진섭, 『신화는 두껍다』, 지성사, 2018.
사라리덕 저,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2002.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양민석, 『글로벌 시민사회의 나눔 가치와 여성리더십』, 한국학술정보, 2012.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역,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2017.
윤혜린 외, 『여성주의 리더십, 새로운 길 찾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연구논문〉

- 김병모, 「김수로왕 연구」, 『민족과 문화』 제6집,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7, pp.209-228.
김용환, 「경남권 킬러 콘텐츠 소재 연구: 가야 설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8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35-156.
김원희, 「난생신화와 창조적 여성성」, 『한국문학과 창조적 여성성』, 푸른사상, 2013, pp.15-33.

-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제102집, 한국사연구회, 1998, pp.1-46.
- 박상란, 「여성신화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19집, 한국문화연구학회, 1997, pp.461-484.
- 송희복, 「외국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 허황옥과 백파선」, 『국제언어문학』 제38집, 국제언어문학회, 2017, pp.37-56.
- 송효섭, 「초월성의 기호학 -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읽기」, 『기호학연구』 제81집 1호, 한국기호학회, 2000, pp.11-33.
- 양민석, 「모성의 사회적 확장과 여성 리더십」,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89-115.
- 이봉일, 「신화와 역사의 간극에 대한 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집, 국제한인문학회, 2014, pp.171-202.
- 이창식,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제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pp.11-43.
- 정대현, 「성기성물(成己成物): 리더십의 여성주의적 가치」,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15-61.
- 정영자,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전개과정과 전망」, 『여성과 문학』 제2집, 1990, pp.300-328.
- 정지영, 「한국 가부장제의 역사와 모성」,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149-169.
- 조성숙, 「「가락국기」 신화의 전승에 나타난 생태적 관점과 의미」, 『민족문화』 제47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pp.5-38.
- 표정옥, 「아름다움의 서사를 활용한 기이함과 신성성의 기호학적 소통 구조 연구 - 『삼국유사』 속 여성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1집, 한국기호학회, 2012, pp.253-279.

Abstract

Reading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Garakgukgi」 in
『Samkukyusa』 and the figures of ‘Heo Hwang-ok’

Cho, Seong-sook

『Samkukyusa』 has the most narrative among the various materials of 「Garakgukgi」 passed down from previous generations because it contains the inherent narration of Heo Hwang-ok. So far, the literary nature of the birth myth of a nation, 「Garakgukgi」, have been discussed widely, and historical reality explored. This includes the study of the existence of Soo-Ro and Heo Hwang-ok. The birth myth of a nation, which has appeared from fairy tales to historical readings, cartoons and novels, have been a narrative focused on Soo-Ro. As Soo-Ro in these studies is a historical protagonist in the birth myth of Garakguk, his narrative has been consistent. Even though his figure changed, the changes were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Heo Hwang-ok narrative in the myth oversees many changes in the modern novels. Therefore, this investiga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figures of Heo Hwang-ok and revealed its meaning.

In the myth, 「Garakgukgi」 in 『Samkukyusa』, Heo Hwang-ok was a proud, honest and loving woman. She was further branded a female character, ‘Ratna’, in Kim Jung’s modern novel, where was portrayed as a concrete figure who is active, dedicated to the community, and the owner of voluntary care. In addition, find her way as a stranger through maternal experience and exerting dynamic leadership, she revealed her characteristic as a person who is going through a rite of passage accomplishing the revelation of heaven. This study thus established that this female image of Ratna (Heo Hwang-ok) provides the leadership that

should be exercised in both men and women today.

Key words: Garakgukgi, Heo Hwang-ok narrative,
Mythical symbol, Transformation, Leadership, Maternal instinct,
Rite of passage

조성숙

소속: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전자우편: jss6615@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

